

디모데 전서 3-4

Tape #C2615

By Chuck Smith

Tonight we will be studying First Timothy three and four. It is interesting as Paul writes to Timothy on several occasions, he uses phrases that are interesting to me. He said, This is a faithful saying, it's worthy of all acceptance. Here he says, beginning chapter three,

이제 디모데 전서 3장과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때에 그가 사용한 구절들이 내겐 흥미롭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란 말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3장을 시작하면서 그러한 말을 합니다.

This is a true saying (3:1),

미쁘다 이 말이여

Again, he'll say, "This is a faithful saying worthy of all acceptance." He'll say, "Without controversy." He speaks to Timothy with interesting phrases affirming the truth of what he is declaring to him. "This is a true saying,"

그는 "이것은 모든 것을 받아 들일 가치가 있는 미쁜 말입니다" 라고 거듭 말합니다. 그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고 말할 것입니다. 그가 선포하고 있는 진리를 확인 하려고 재미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진실한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If a man desires the office of a bishop [or overseer], he desireth a good work (3:1).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3:1).

Not a good position, but a good work. The word "episcopize" which is translated here "bishop" is really a word that means an overseer. One who takes the oversight. The word translated "elder" is the word, "presbytery" or "presbyteries." The presbytery is the elder of the church. They name implies an older man, and in the communities they had as the governors of a community the "presbyteries."

(감독은) 좋은 지위가 아니라 좋은 일이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피스코포스"란 단어는 "감독"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감독이나 관리인이라는 뜻이며 감독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프레스비테리' 혹은 '프레스비테리스'는 '장로'라고 번역했습니다. "프레스비테리"는 교회의 장로입니다. 이 명칭은 보통 나이가 많은 남자를 의미하며 그들은 지역 사회에서 "프레스비테리스"는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The English had the alder men who were appointed as the judges within a community and the term “alder men” is actually “elder men.” It was declared that a person should not be a “presbytery” unless he was over the age of fifty. The “episcopize,” on the other hand, was the man who was the overseer. He was the often the minister of the church. One who would oversee the church. And from this, we have a great division in the church today between the Episcopalians which comes from the “episcopize” and the Presbyterians which comes from the “presbyteries.”

영국에서는 ‘얼더맨’이라 부르는 시의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재판관으로 임명된 사람들 이었습니다. ‘얼더맨’이란 용어는 사실은 영어의 ‘엘더맨’을 말합니다. 장로란 뜻이지요.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남자가 나이가 50세를 넘지 않으면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에피스코피즈’는 감독관이었습니다. 흔히 그는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교회의 사역자이기도 했는데 주로 교회를 감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교회 안에 ‘감독자’에서 출발한 성공회와 ‘장로’로부터 출발한 장로교의 큰 분류가 있게 되었습니다.

So the difference between a church being ruled by the elders or the church being ruled by the “episkopos,” the overseer. And it is interesting though as you look at it in the word of God, they probably were one and the same. As you study it in the New Testament, the use of the words are often interchangeable. And when Paul was writing, he addressed the elders but of course, that would include the “episkopos” also. When he called for the elders of Ephesus, it would have been wrong for him to have called for the elders without the “episkopos” and so as you look at it throughout the New Testament, a strong case can be made that the terms are almost synonymous or interchangeable, at least in their usage in the New Testament.

그래서 장로에 의해 주관되는 교회와 감독관에 의해 주관되는 두 교회는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들은 아마도 하나요, 같았을 터인데 말입니다. 신약을 공부하노라면 단어 사용에 종종 서로 교환이 가능한 단어들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장로들 앞으로 부쳤어도 당연히 감독들을 포함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을때 감독을 빼놓고 장로들 만을 불렀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여겨 질수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적어도 신약성경에서 사용한것을 보면 용어가 거의 동의어 이거나 서로 교환할수 있는 용어들이라고 강조할수 있습니다.

So “if a man desires this office of an overseer of the church, he desires a good work.” But these are the qualifications for the man.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의 감독관이 되고자 하거나 좋은 일을 섬기고자 하면 그에 따른 자격이 요구되었습니다.

Now that ought to just about exclude anybody. He must be,
누구든지 적용되는 것이지만 , 2절 말씀에,

The overseer then must be blameless, the husband of one wife (3: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3:2),

In that particular time, the marriage vows were in the pagan world not really held in high esteem. The Greek culture had a saying that every man should have a mistress for his entertainment, a concubine for his sexual pleasure, and a wife to bear his legitimate children. But the wife was looked upon as, more or less, a chattel, an object.

그 당시에 무신론자들의 세계에서 혼인서약은 다소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모든 남자는 여흥을 위해 연인을 하나 두고, 성적쾌락을 위해서는 첩이 있어야 하고 그의 합법적인 자녀를 낳아 기르기 위해 아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저 소유물이나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Now in none of the cultures in those days did a wife have the right of divorce. That was something that only the husbands had. And even in the Jewish culture, a husband could get a divorce for just about any cause. And even to that time, in the Jewish culture in many areas, polygamy was practiced. Josephus speaks about those that were had three or four wives. And polygamy was a practice even in that time in the Jewish community.

그 당시에 어떤 문화권에서도 아내가 이혼할 권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오직 남편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었죠. 심지어 유대인 풍습에도 남편은 어떤 이유로든지 이혼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곳곳에 유대 풍습에 보면 일부다처제가 성행했으니깐요. 요세푸스는 한 사람이 세 명 혹은 네 명의 아내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까지도 일부다처제가 시행되었습니다.

The church is to be a separate and distinct entity within the world. Standards that are higher than the world. And thus he establishes the standard for the “episkopos,” a man who was an overseer in the church, he should be “the husband of one wife.” He should be,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되었고 다른 개체입니다. 따라서 기준도 세상의 것보다 높습니다. 이리하여 바울은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자들을 위해 기준을 세웠는데, 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는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That is, in his overseeing of the flock of God. He needs to take careful oversight. He needs to be,

다시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주의 깊게 돌보며 감독해왔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Vigilant, sober, of good behaviour, given to hospitality, and able to teach (3:2);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3:2);

So these are the beginning of the qualifications. Next of all, he's

이것은 그들의 기본적인 자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Not to be given to wine, no striker (3:3),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3:3)

(약물중독자도 물론 기준에 미달되겠지요.)

not greedy of filthy lucre; but patient, not a brawler, not covetous; One that rules well his own house, having his children in subjection with all gravity; (For if a man know not how to rule his own house, how shall he take care of the church of God?) He's not to be a novice, lest being lifted up with pride he fall into the condemnation of the devil (3:3-6).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찌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 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찌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3:3-6).

So this is what Paul instructs Timothy as the qualifications for an "episkopos," an overseer. Now if you will read Paul's letter to Titus, he gives to them the qualifications of a "presbytueros," an elder. And you find that as he gives the qualifications of an elder, they are pretty much similar to the qualifications of an "episkopos" or an overseer.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시한 감독자로서의 자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디도서를 읽어 본다면, 장로들의 자질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장로들의 자질에 관한 것을 말할때 그 내용들이 감독들에게 한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Next he turns to the deacons.

다음으로 집사에 관하여, 8절 말씀입니다.

And likewise must the deacons be grave [*or sober*], not doubletongued, not given to much wine (3:8),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 구 이 언 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 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3:8),

This is, of course, a little interesting in that the overseer, the "episkopos," was not to be given to wine; the deacon was not to be given to much wine. That probably is cause for a lot of persons to seek the job of a deacon rather than an elder.

감독들에게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지만, 집사들에겐 ‘너무 많은 포도주는 삼가하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로보다는 집사직분을 갖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Paul the apostle, in writing to the Corinthians, said, “All things are lawful for me, but all things are not expedient.” Some things can impede my progress towards my goal. All things are lawful for me but not everything builds up. Some things tear me down. “All things are lawful for me,” he said, “but I will not be brought under the power of any, or the influence of any” (I Corinthians 6:12).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어떤것들은 나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모든것이 합법적이기는 하나 모든것이 나를 세워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것은 내 명예를 손상시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 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전 6:12).

We have a very interesting case in the Old Testament when God commanded Moses to build the tabernacle and He gave him specific instructions as to the materials and the dimensions and the sizes, the whole thing. He gave him his careful instructions in building. Once they had built the tabernacle, had set it up, had set up the altar and the whole framework for the sacrifices, the time came to inaugurate now the temple or the tabernacle worship of God. And so the altar was built, the sacrifice was placed upon it and fire came from heaven and sort of lit the fire of the altar. A supernatural manifestation of God. The presence of God came down,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tabernacle. The priest, because of the glory of the Lord, sort of swooned, they weren't able to stand up.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짓기 위한 재료와 규격과 크기와 모든것에 관한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장막 하나 짓는 데도 신중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장막을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웠고 제단을 설치하고 희생을 위한 뼈대가 갖추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성막의 낙성식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단이 세워졌고 희생물이 제단에 놓였으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에 불을 부쳤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주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거의 기절하여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And in the midst of this moving of God among the people, a couple of Aaron's sons got excited. And they had little bowls with incense that they were to offer before the Lord and they went in to offer this incense in the excitement of the moment and the fire came from the altar of God and consumed them. And later, God commanded Moses to speak unto Aaron that when they were doing the service to God, they weren't to drink wine. Made very specific commandments. The intimation is that the two sons of Aaron perhaps had been drinking a little wine and had lost their sense of good judgment. And that is why they were

consumed by the fire of God when they sought to offer strange fire before the Lord.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한창일 때, 아론의 아들들은 대단히 흥분했습니다. 하나님앞에 드려야할 향을 담은 작은 대접들을 가졌고 그들이 흥분된 순간 이 향을 바치러 들어가자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봉사할때엔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는것을 아론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특수한 명령이었지요. 이 암시는 아마도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포도주를 마셔서 그들의 판단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주님 앞에 이상한 불을 바치려고 했을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그들을 살라 버린 이유입니다.

God wants us to serve Him with a clear head, with a clear mind. Now a lot of people get very godly minded when they get drunk. And we've had them call the house two, three in the morning and my wife sleeps on the side where the phone is, I don't know why but she does. And sometimes the phone will ring in the middle of the morning and someone will start telling, I want to tell you what a wonderful husband you have and all. And she'd say, "Here, tell him," and she hands the phone to me. The praise that comes from the lips of a drunk really don't do much for you. That's what they may think when they're drunk but what do they think of me when they're sober?

하나님은 우리가 맑은 정신과 깨끗한 마음으로 그 분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대단히 경건해 집니다. 새벽 두시, 세시에도 상관없이 전화를 하기도 해서 나의 아내는 전화가 있는 구석에서 잠을 잡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어찌다 전화 벨이 아침에 울리면 누군가 말을 시작할것입니다. 당신이 너무나 훌륭한 남편을 가진것을 말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리고는 "여기 있으니 그에게 말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수화기를 내게 줍니다. 술이 잔뜩 취한 입술에서 흘러 나오는 칭찬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술에 취할때 생각하는것이지만 그들이 정신이 맑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것입니까?

And so in our worship of God, no artificial stimulants. He wants our worship and praise to come from a heart and from a mind that is not under some kind of a false stimulant. So the overseer, the one who had the responsibility of overseeing the church, not to be given to wine. Whereas the deacons and these were the people who oversaw the more practical aspects of the church in those days, the administering of the church's welfare program and things of this nature, they were not to be given too much wine.

하나님을 예배할때 인위적인 자극제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는 우리의 예배와 경배가 거짓 자극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심령과 마음에서 우러난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감독하는 책임을 맡은 감독들에게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집사들은 교회의 여러 면을 더욱 실질적인 면을 돌아보는 자들로, 교회의 복지프로그램과 그 외의 일을 관리해야 함으로, 너무 지나치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금하게 되었습니다.

The wine in those days, of course, was drink by just about everybody. It was mixed three parts of water to two parts of wine. And of course, at that ratio it would take an awful lot to get a person drunk and usually you'd get too full before you could get drunk. But it was a diluted form and really, it was drunk in lieu of the water which in many places was not fit to drink. You remember Paul said to Timothy to "take a little wine for your stomach's sake and your oft infirmities" (I Timothy 5:23).

물론, 당시의 포도주는, 모든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 였습니다. 3컵의 물에 2컵의 포도주를 섞은 것이죠. 물론, 그 비율에서 한 사람이 취하려면 상당한 양의 포도주를 마셔야 할것이며 취하기 전에 너무 배가 부를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석된 것이며 여러 곳에서 물을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물 대신 마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5:23).

So a deacon not to be given to much wine. We are told "not to be drunk with wine, wherein is excess,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Ephesians 5:18). They also are,

그래서 집사도 너무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엡 5:18).

(이제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not to be greedy of filthy lucre; Holding the mystery of the faith in a pure conscience. And let these also first be proved; then let them use the office of a deacon, being found blameless (3:8-10).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 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찌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3:8-10).

So much of the same requirements for the elders are also for the deacons. Deacons are to prove themselves.

장로들에게 주어졌던 이 같이 많은 요구 사항들은 집사들에게도 또한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지킴으로 자신의 자질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11절에,

And even so wives (3:11)

여자들도 (3:11),

Now in our King James, you notice "must their wives" is added because the translators thought that he was probably referring to the wives of the

deacons which is possible but it is also possible that Paul is just referring to the deaconesses. And that this is in reference to those women who would take a activity within the church body in the office of a deaconess. And “so also wives are to,”

킹 제임스 성경(흠정역) 에 보면, “아내들도 당연히” 라고 덧붙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자가 판단하기에 바울이 언급한 것들이 집사의 아내들에게 해당된다면, 여자집사 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조직 안에서 여자 집사로 섬기는 이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말하기를 “아내들도 그렇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be grave, not slanderers, sober, faithful in all things. And let the deacons be the husbands of one wife, ruling their children and their own houses well. For they that have used the office of a deacon well purchase to themselves a good degree, and great boldness in the faith which is in Christ Jesus (3:11-13).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찌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찌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3:11-13)- 라고 말합니다.

And so Paul here writes the qualifications for these offices.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직책을 위한 자질을 말합니다.

And he said,

14, 15절 말씀,

These things write I unto thee, I hope to come unto you shortly: But if I [don't, if I have to] tarry here awhile, I want you to know how you ought to behave yourself in the house of God, which is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the pillar and the ground of truth (3:14-15).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3:14-15).

Timothy was left at Ephesus by Paul to strengthen the church. It is to Timothy in Ephesus that Paul is writing and instructing him in the things of the government of the church.

디모데는 바울의 권면을 좇아 교회를 강하게 세우기 위해 에베소에 남았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 바로,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을 때 교회의 행정을 세우는 일에 대해 바울이 그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Now having declared the qualifications for the deacons, the overseers and the deaconesses, again when you get to these qualifications we realize that very

few people could really qualify for these offices. These characteristics and traits that are required for those in leadership roles are stricter than the average, you might say. It takes a life of commitment. And many people may, as the result of these requirements, feel unqualified to take a position of authority within the church. And so Paul in verse sixteen declares,

집사들과 여자 집사들, 그리고 감독자의 자질에 대해 말했고, 우리가 이 자질을 다시 살펴볼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교회의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인품이나 특성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것은 삶의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요구되는 사항의 때문에 교회 안에서 권위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말하기를,

And without controversy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3:16):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3:16):

Godliness is godlikeness. Great is the mystery of being like God. These characteristics and traits that are described are the characteristics and traits of God. God wants us to be like Him. A man who is an elder in the church or an overseer in the church is really one of God's representatives to the people. And one of the most awesome responsibilities is that of being God's representative. People looking at the leadership to understand God. God wants me to be like Him so that as people look at me, they can understand what God is about. And that is all the understanding that many people will ever have of God is what they observe in the life of the followers of God. So each of us are God's representatives to the world. But those who take the position of an elder or an overseer have even a greater responsibility of being God's representatives to the people. And God doesn't take lightly how we represent Him.

경건이란 하나님 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 비밀이 큰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성품과 특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장로나 감독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도자들을 쳐다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닮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서 관찰되어지는 것으로 그들이 섬기게 될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로나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대표하는 더 큰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James tells us that we should "not be many masters, knowing that we receive the greater condemnation" (James 3:1). We are told "unto whom much is given, much is required" (Luke 12:48). And so for those who in the position of overseeing, there is a tighter standard by which they must live. Blameless, of good reputation, really even outside of the church, by the manner of life that you live that it doesn't bring blame unto Jesus Christ or to the gospel of Jesus Christ.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약 3:1). 또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 □□ □□□” (눅12:48)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자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단호한 규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교회 밖에서조차도 흠잡을 것이 없고, 좋은 평판을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그 분께로 비난이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It has been the sad tragedy of the church's history that not often does the leadership take that awesome responsibility of representing God seriously enough. Paul talks about falling in the snare of the devil. And Satan surely seeks to trap ministers. And it is always a tragedy and a very sad thing when you see a servant of God being trapped by the enemy because of the reproach that it brings upon the Gospel. As Nathan said to David concerning his sin with Bathsheba, “You've caused the enemies of God to blaspheme” (II Samuel 12:14).

교회역사의 슬픈 비극은 다름아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대한 엄숙한 책임을 신중히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마귀의 꾀계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확실히 사역자들을 함정에 몰아 넣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적의 덫에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까지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밋세바와 범죄 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그에게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와의 원수로 크게 훼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삼하 12:14).

The problem, of course, is that Satan, I think, works harder on those who have a greater influence than those of lesser influence. I think that the more the Lord uses you, the greater are the temptations that the enemy places in your path. This past year, two of the most promising, talented of the young ministers in our Calvary Chapel outreaches fell into the snare of the enemy.

물론 문제는 작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는 시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많이 사용하시면 그럴수록 더 사단은 여러분의 길목을 가로 막고 더 큰 유혹으로 여러분을 방해 합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교회의 지교회에서 두명의 아주 촉망되고 재능 있는 젊은 사역자들이 악한 자의 덫에 걸려 들어 넘어졌습니다.

One, thank God, has been delivered and has been restored. But the other is still ensnared. And it grieves me. It breaks my heart because I love these young men like a father loves a son. And I was just so thrilled with their ministry, the effectiveness of their ministry, the effectiveness of their communication. Their ability to teach. It was a thrill to see what God was doing through their ministry and through their lives and say we're touching thousands of people. To see them ensnared by the enemy is a just a tragedy and a grievous thing to my heart.

한 사람은, 감사하게도 다시 회복되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나를 슬프게하고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역자는 내게는 친 아들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의 사역과 영향력있는 사역과 또 그들의 효과있는 의사소통에 정말 감동했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과 삶을 통해 행하시는 것으로 수 천명이 영향을 받는것을 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바라보는 일은, 비극이며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것입니다.

Great is the mystery of being like God. God wants us to be like Him. That's His purpose in creating us. And when He created us, He created us like Him, He made us in His image and after His likeness. It was the purpose of God that we be like Him. What is He like? God is love. God wants love to dominate our being. God is pure. God is holy. He wants us to be pure. He wants us to be holy. God is kind. God is compassionate. God is patient. He wants us to be kind, compassionate, patient. He wants me to be like Him. "Great is the mystery of being like God." Because I say, Hey, yes, I want to be like God. But how to be like God is another thing. There are many people who accept that, Yes, being like God is the greatest thing that could possibly happen to a person. And they try to be like God but we find that whenever we try to be like God, there are other forces at work within us, hindering us from our goals.

우리가 주와 같이 된다는것은 대단히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그와 같아 지기를 원하시며 이것이 또한 그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우리를 그와 같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 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전하시며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순전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동정심이 많으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와 같이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으며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도 하나님 닮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것인가 하는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것은 인간에게 일어날수 있는 최대의 사건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목표를 방해하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As Paul the apostle described in Romans chapter seven, "I consent to the law of God that it is good. But I find that there is another law at work within my members, within my body. And the good that I would I do not: and that which I would not, I do" (Romans 7:16,19,23).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묘사한것과 같이"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 하노니, 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롬 7:16, 19, 23) 라고 바울을 말합니다.

I consent to that which is good. But how to perform it, I just can't find. And we find ourselves in that position so many times. I consent this is right, this is good. That's what I ought to be doing. But how to perform it? That's where the problem lies. And he cried out, "O wretched man that I am! Who shall deliver me from this body of death" (Romans 7:24)?

나는 전적으로 이 말에 동의 하지만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방법을 발견할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입장에 처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좋다는것을 동의하며 내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도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행해야 합니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부르짖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롬 7:24)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being like God. It's a great mystery that has been solved. It was solved in the incarnation. So "without controversy, great is this mystery of godliness." But God solved the mystery through the incarnation of Jesus Christ for,

바울이 말하는 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란 하나님과 같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그 큰 비밀은 성육신으로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이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이 비밀을 푸셨던 것입니다.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3:16),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3:16),

A plain, clear, positive declaration that Jesus Christ is God.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And the purpose of the incarnation was to bring man to godlikeness or to help us to be like God.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솔직하고 명료하며 긍정적인 이 사실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사람을 경건하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도와주기 위한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것입니다."

He was justified [or proved to be righteous] in the Spirit (3:16),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3:18),

The Spirit led Him in the wilderness to be tempted of the devil and He passed every test. He resisted the temptation. He remained true and obedient unto the first principles of God. He was "justified or proved to be righteous in the Spirit."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셨을 때, 그는 모든 시험을 통과 하셨습니다. 유혹을 견디셔야 했죠. 그는 하나님의 첫째 원칙에 진실하여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옳다고 인정되었고 또 증명되었습니다.

He was seen of angels (3:16),

천사들에게 보이시고(3:16)

After His temptation, the angels came and ministered unto Him. Also,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angels had never seen God until the incarnation. Great is the mystery of being like God.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justified in the Spirit, seen of angels." God dwells in a light that man cannot approach. Those who had visions of God never had a vision of a form. There was always just that brightness of the glory that shone forth from His being. Looking directly into a light, a brilliant bright light, all you can observe is just light.

시험 받으신 후에 천사들이 와서 그에게 수종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성 육신이 나타나기까지 천사들은 하나님을 한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비밀이 크지요. '□□ □□□□ □□□ □ □□□ □□□ □□□ □□□□ □□□□□ □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들도 그 형상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계시는 곳에서는 비치는 영광의 광채만 항상 있었습니다. 빛을 똑바로 바라보면, 그 밝은 빛이 비추어 오직 그 빛만 볼 수 있습니다.

Have you ever been out in the woods at night and it's been dark and someone turned one of those five-cell flashlights in your eyes? Have you ever been a kid at camp? Those counselors always carried those five-cell you know and they put it right in your eyes. All you see is the bright light in your eyes. You don't see the flashlight. You can't even see the counselor. All you all you see is this bright light that is shining in your face. But you have no sense of form because all you can see is the light. You don't see the little bulb, you don't see the filament within the bulb, you just see the brilliance of the light.

혹시 밤중에 숲속에 나가 본적이 있습니까? 아주 어두운 데, 어떤 사람이 회중전등을 눈에 비춘 적이 있으신가요? 어릴 때 캠프에 혼자 남겨진 경험이 있습니까? 회중전등을 항상 들고 다니는 상담 교사들이 아마도 여러분의 눈에 밝게 비췄을 것입니다. 당신이 볼 수 있는건 눈에 비췄 밝은 빛 뿐입니다. 회중전등도 보이지 않고 상담 교사도 똑바로 볼 수 없었겠지요. 여러분의 얼굴을 비추고 있던 밝은 빛이 여러분이 볼 수 있던 전부였을 것입니다. 빛이 보인다 해도 그 형체를 볼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 안에 작은 전구를 보거나 전구 안에 있는 필라멘트를 본 것이 아니라 그저 밝게 빛나는 빛만 보았을 것입니다.

So God, the glory of His presence so overwhelming. The brilliance that comes forth from this Creator of the universe. Call it energy or whatever you wish, that must be emanating forth from God. It is possible that the angels had never even seen the form but only the brilliance coming forth from His presence. Until He was "made flesh and He was then seen of angels." He was,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즉 우주의 창조자로부터 오는 이 밝은 빛은 압도적입니다. 그것을 에너지라고 부르거나 무엇이라고 부르던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으로 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천사들에게 보이실" 때 까지는, 천사들이 결코 그 하나님의 형체를 볼 수 없었지만, 오직 그의 임재 하심으로 부터 오는 밝은 광채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16절 말씀,

preached unto the Gentiles (3:16),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3:16),

As Paul tells King Agrippa concerning his Damascus road experience, he tells him that the Lord had called him to go unto the Gentiles, to turn them from darkness to light. From the power of Satan unto God. And then He was,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자신의 경험을 아그립마 왕에게 얘기할 때, 주님이 그를 불러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을 흑암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하신것을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16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believed on in the world received up into glory (3:16),
세상에서 믿은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3:16),

All over the world, those who believe on Jesus Christ. Those who believe upon God who was manifest in the flesh. And then He was, received up into glory.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온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되며 또 영광가운데 올리우셨다고 말합니다

He said I came from the Father, I'm going to the Father. In His return to the Father, the cycle was complete. His ministry was accomplished. Jesus came to manifest to man what God is. And He was the true and the faithful witness. All that we need to know about God, we discover in Jesus Christ. "No man has seen the Father at any time but the only begotten Son which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th manifested him" (John 6:46). Made Him known, declared Him.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나는 아버지께로서 왔으며 또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되 돌아가는 것이 완벽한 끝맺음입니다. 그의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가를 나타내며 그가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임을 나타내려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발견할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 6:46) 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는 하나님을 알리셨고 그분을 선포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God, who at sundry times and in different ways spoke unto our fathers through the prophets, hath in these last days spoken unto us by his own dear Son, whom he hath made heir of all things, who was the effulgence of his glory, [or the outshining of His glory]” (Hebrews 1:1-3). So He fulfilled His purpose in manifesting God to us and He fulfilled the purpose of redeeming the world back to God through His death upon the cross.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려는 목적을 달성하셨고 또한 십자가상에서 그의 죽음을 통해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구속하시려는 목적도 달성하셨습니다.

So now as He returns to the Father, He is promising that He is going to send to them the Holy Spirit. One who would come alongside of them to help them. “I will leave you without help,” He said, “But I will pray to the Father, and he will give to you another Helper, even the Spirit of truth; whom the world cannot receive” (John 14:16,17). And He tells us that when the Spirit comes, we will receive power. What kind of power? Power to be like God. Great is the mystery of being like God. You cannot be like God with your best effort no matter how hard you try. It isn't within our nature or our power to change our nature to be like God. The only way I can be like God is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orking in me and changing that nature.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그들의 곁에서 돌보아 줄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 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 14:16,17). 또 그는 말하기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는 능력이요, 경건의 크신 비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의 최선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처럼 바꿀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성품에나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본성이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같이 변화 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수있는 오직 한가지 방법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본성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And so 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upon the church was the proof that Jesus had indeed ascended to the Father. Because that was His promise when He

came to the Father, He was going to send the Comforter. It is necessary for you that I go away because if I go away, if I go not away, the Comforter cannot come. That helper, the Holy Spirit. But if I go away, I will send Him. And so Jesus sent the Holy Spirit and through the power and the working of the Holy Spirit within my life, godlikeness is now possible. And as I am yielding myself day to da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me everyday is making me a little more like God.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에 강림하신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 가셨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를 보내 주시겠다고 하신 그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도우시는 성령,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를 보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에 오셔서 그가 능력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해지는 것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내가 날마다,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더욱 주님과 같이 되게 만드십니다.

As Paul the apostle said, “I have not yet apprehended that for which I was apprehended. Neither do I count myself perfect, but I’m pressing towards the mark” (Philippians 3:13-14). What is the mark? Being like God. Godlikeness. And so I’m on my way. And as John said, “Beloved, now are we the sons of God, it doesn’t yet appear what we’re going to be: but we know when he appears, we’re going to be like him” (I John 3:2). One of these days His work will be complete in us and we will be just like God. And the purposes of God will now be accomplished in His creation for man. For God created man to be like Him and through Jesus Christ an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 am being restored into the image of God.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기를 “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 3:13-14) 했습니다. 여기서 꾀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죠. 경건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갈길을 가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 3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요일 3:2) 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끝나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것입니다. 인가의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곧 완수될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과 같이 되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Great is the mystery of being like God. But that mystery is solved in the incarnation and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at Jesus has sent.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 비밀은 큰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 육신과 그의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Now the Spirit speaks expressly, that in the latter times some shall depart from the faith, giving heed to seducing spirits, and doctrines of devils (4: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 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4:1)

Here Paul speaks of a departure from the faith. There are some who claim that such a thing is impossibility. But “the Spirit speaks expressly, that in the latter times there would be some who would depart from the faith.” Jesus in speaking of His return said, “When the Son of man return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Luke 18:8) A question. He also told His disciples that because of the iniquity of the earth abounding, the love of many will wax cold. And so it means that living in the last days is going to be living under a great-pressured situation. We are finding that to be true.

여기에서 바울은 믿음을 떠나는 배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분명히, 후 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에 대해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눅 18:8). 그는 또한 ‘□□□ □□□□ □□ □□□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제자들 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산다는 것은 대단히 가중한 압박을 받으며 살아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The opportunity of fulfilling a person’s fantasies for sin are all around. You can indulge yourself now in just about any type of a sinful fantasy that you may desire. Read the personal columns in your Santa Ana Register. Any kind of a experience that a person may desire is available for a price. Pornography, the openness of our society, the breakdown of the moral values, has opened a door of opportunity for anyone to just indulge themselves in their flesh.

인간이 죄를 위한 환상적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기회는 온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동안 자신이 꿈꾸어 오던 욕구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닉할 수 있습니다. 지역 신문에 게재된 개인 정보란을 보십시오.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고안된 별의별 종류의 방법들을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살 수 있습니다. 사회에 개방되어 도덕적 가치관을 파괴하는 음란한 영상물은 누구에게나 그들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에게 기회的大门을 열어 주었습니다.

Jesus said “because the iniquity of the earth shall abound, the love of many will wax cold.” The Spirit speaks expressly of the latter days that many will be departing from the faith.” It is not easy to live the Christian life in this world in which we live today that is so totally given over to the flesh. You cannot look at any of the media without being exposed in some way or other to the things of the flesh. It’s not easy to live a Christian life now. These last days it is going to be harder. To keep the faith, it is going to take a positive commitment.

As Daniel, you're going to have to determine in your heart that you're not going to defile yourself with the opportunities in the world around you. But that you're going to live completely and totally for God a life of godlikeness and you cannot do it without the power of the Spirit.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밝혀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리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육체 중심으로 넘어간 오늘날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매개체든지 간에 이런 방법 혹은 저런 방법으로 육체적인 것을 노출 시키지 않는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더욱 더 어려워집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말김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처럼, 당신 주변에 있는 세상에서 여러가지 기회로 당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닮은 생활을 해야하며 성령의 능력 없이는 그렇게 할수없습니다.

So the Spirit speaks expressly of the last days. It's going to be tough. Many will “depart from the faith, giving heed to seducing spirits.” And how much seduction is in the world today! Seductive spirits are in the world today. I mean it's there, it's all around you. The seductive spirits. And “to doctrines of devils.” And I'll tell you, in our society today men are espousing the doctrines of devils, telling you that any kind of life is acceptable to God. The Lord said, “because they did not want to believe the truth, God turned them over to believe a lie” (II Thessalonians 2:10-11). And men would believe a lie rather than the truth.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에 관하여 밝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삶은 힘들어 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을 좇게 될까 주의하세요”. 오늘날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혹의 영들이 우리 주변 뿐 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널려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이 우리 주변과 세상에 퍼져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종류의 삶을 다 인정하신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이라” (살후 2:10-11). 그리고 사람들이 진리대신 거짓을 믿게 될 것입니다.

And I have found this so true today. You take any kind of a screwy heresy and it can spread all over the world in six months. If you want to become popular, just dream up some new heresy for the church. Oh how I wish to God that they would be more careful in the things that they allow to be proclaimed. I wish they would just stick to the Word of God. People are so reticent to receive the truth but so ready to receive a lie, a heresy.

요즈음 나는 이 말이 너무나 사실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괴상한 이단 종파를 접했다면, 이것이 전세계로 퍼지는 것은 6개월이 채 안 걸립니다. 그러니 만일 유명해 지고 싶은 게 꿈이라면, 이단종파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이 보다 빠른 방법이겠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그들이 그들이 선포하는것에 좀더

신중했으면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으나 거짓말과 이단은 너무 쉽게 받아 들입니다.

People are so ready to believe that California is going to get wiped out during the Olympics in an earthquake. How many people have called all worried, you know? Oh my. This earthquake's going to come. I have lived through at least ten of these visions and it hasn't come yet. Now I'll tell you what's going to happen. I'll make my own predictions now. When the Olympics are over and the earthquake did not hit, they are then going to start taking credit that their prayers kept it from happening. I mean, there's no way they're going to loose. They fasted and they prayed and they saved California.

사람들이 이번 올림픽기간 동안에 캘리포니아가 지진으로 인해 폐허가 될 것이라고 쉽게 믿습니다. 낭설에 얼마나 많이 들 걱정하며 전화를 하는지 아세요?. 지진이 올 것입니다. 나 역시 살면서 이 환상들을 적어도 10번은 지났지만 아직 그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곳의 수많은,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로써 막았다는 것으로 영광을 취하기 시작할것입니다. 그들이 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해서 캘리포니아를 구했다고 할것입니다.

How look how that thing in just a couple of weeks time has swept through the whole community. Our switchboard has been swamped this week with this nonsense. Hey, if you want to predict that there's going to be an earthquake in California, man, there's nothing to that. Of course there's going to be. I mean, this is earthquake country. We're surrounded by faults. But I predict that we won't have a major earthquake during the Olympics.

지난 두 주간 동안 온 지역을 어떻게 휩쓸고 지나갔는지 보십시오. 우리 전화 교환원이 이번 주에 이 터무니 없는 얘기들로 인해 아주 탈진이 될 정도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 예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지진은 일어나겠지요. 내가 말하는것은 이 지역은 지진이 잦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질 단층으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언하건대, 올림픽 기간동안에는 절대로 큰 지진이 없을 것입니다.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Speaking lies in hypocrisy; having their conscience seared with a hot iron (4:2);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4:2);

I really wonder how these evangelists and all can really sleep at night with all of the gimmicks that they pull. "Speaking lies in hypocrisy." I don't know if you've been cursed to be on their mailing list or not. But we keep a file and the things that they can dream up to extract money from people. And you wonder, How can they do that? In the name of God, how can they tell such outlandish lies? The only answer is "their conscience has to be seared with a hot iron." They have no conscience. For them to live in palatial mansions, do the things they do and then get up and say, Friends, we need your money.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전도자들과 많은 이들이 속인 모든 속임수를 써 먹으면서 어떻게 밤에 잠을 편히 잘수있는가 의아합니다.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 이죠. 나는 여러분의 이름이 그들의 주소록 명단에 올려져 있는것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사람들로 부터 돈을 짜내려고 꿈을 꾸는 자료들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그렇게 야비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은’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양심이 없어요. 그들은 모두 궁전 같은 저택에 살면서 평상시에 하는 일을 하면서 자고 일어나서 하는 소리는 “ 친구여, 우리는 당신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 뿐입니다.

Our tour guide in Israel gets after me. He said, "You don't know how to operate a tour." He said, "Tour leaders with famous names never travel with the people on a tour. They don't travel on the jets with the people, they fly over in their own private jets. And they don't get on the buses with the people, they get in private limos and they'll meet the people twice during the tour and then fly home in their jets." He said, "You travel all around with the people. He said, You never make deals with the tourist shops and all." And he said, "You just don't know how to operate a tour." He said, "Now you ought to come and watch some of these fellows at work."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우리 관광 안내원이 내게 해 준 말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행사 운영 하실줄을 모르시는군요. 이름 있는 고위직의 여행 인솔자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반 여행객들과 같이 다니지 않고 자신들의 개인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버스도 물론 안타고 전용 리무진을 탑니다. 여행일정 중에 사람들은 겨우 한 두 번만 만나고 다시 제트기를 타고 돌아 간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번번히 여러 사람들하고 여행을 다니시는데. 다음엔 여행사하고 계약하지 마세요. 어떻게 여행사를 운영 하실줄 모르시네요. 이제 오셔서 이 사람들이 일하는것을 살펴보십시오” 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The conscience is seared with a hot iron. How in the name of God can they do these things? Except their conscience is just seared with a hot iron. Now in some of these last day weird things, there are those who will be,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 이런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습니까?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받지 않고는 그럴수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때에 있을 망칙한 일들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3절,

Forbidding to marry (4:3),

혼인을 금하고(4:3),

Of course, marriage is becoming almost a thing of the past. It's, “Move in with me.” And there are so many just move-in relationships without marriage. That's the thing of the day.

결혼도 이제는 거의 과거의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랑 살자’그럼 끝이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며 사는 일은 이제 너무 흔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Abstaining from meats, which God has created to be received with thanksgiving of them which believe and know the truth (4:3).

식물을 폐하라 할 터 이나 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3).

be received with thanksgiving (4:4),

감사함으로 받으라 (4:4),

A lot of the cult things and occult things get into vegetarianism. But Paul tells us these things meat is to

신흥종교나 사교에 심취한 이들은 채식주의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고기도 감사함으로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For the meat is sanctified by the word of God and prayer (4:5).

식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So pray over your meal and eat it.

그래서 식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식사하십시오. 6절,

If thou put the brethren in remembrance of these things, thou shalt be a good minister of Jesus Christ, nourished up in the words of faith and of good doctrine, whereunto thou hast attained (4:6).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군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4:6).

So remind the brethren of these things, Paul said, writing to Timothy. If you do, then you will be a good minister of Jesus Christ as you nourish them in the words of faith, sound, good doctrine.

이것으로 형제에게 깨우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가 형제들을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가르치고 강건케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군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But refuse the profane and old wives' fables, but exercise thyself rather unto godliness (4:7).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4:7).

Now you can waste a lot of time in earthquake scares, reading a lot of the junk that's published. Better to exercise yourself unto godliness.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진을 걱정한다든지 혹은 엉터리얘깃거리로 정신이 팔려 귀한 시간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Bodily exercise profits a little [or for a little] (4:8) □□□
□□□ □□□ □□□ □□□:

Doesn't really forbid it. It's good, got a little profit to it. But more profitable is.

육체의 연습을 실제로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고 약간의 유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godliness it's profitable unto all things, having the promise of the life that now is, and of that which is to come (4:8).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4:8).

Years ago when I really made my choice between Medicine and as a career and the ministry as a career, as the Lord was dealing with me and speaking to my heart concerning the ministry, He pointed out to me that by going into medicine, by becoming a medical doctor, by ministering to people's physical needs, I could help people but at the best, it would only be temporal. So they're strong and healthy and live for a hundred years. But if I would go into the ministry and minister to the spirit of man, healing the spirit, bringing spiritual healing, that I would be involved in something that would benefit them eternally. And He more or less put it up to me, How do you want to benefit man? In the temporary way or in an eternal way? And when He put it to me that way, I had no choice.

오래전에 나는 의사의 직업과 목사의 직업,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선택을 할때, 하나님께서 사역에 대하여 나를 다루시며 말씀하시기를 의사가 되어 의료업에 종사함으로써 할수있는것은 사람들의 신체적인 도움을 줄수있으며 그것이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도울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며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튼튼하고 건강해지면 약 100 년 살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역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영을 사역하고 영을 치료하며 영적인 치료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영원한 유익을 줄수 있는 일에 종사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익을 주려는지 내가 선택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선택할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선택할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을때 나에게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Now Paul is saying the same thing about exercise. Physical exercise has temporal benefits. But godliness has eternal benefits. Now we are living in a day of you know it's sort of a craze, this physical exercise. Jogging, aerobic exercises. The other night my wife and I were eating at a restaurant, we looked across the street we saw all these heads bouncing up and down and all. And man, the whole time we were eating they were bouncing. I did admire them. And I didn't eat desert. But this bit of physical fitness, it's a craze, it's swept America. And that's alright. Paul's not really coming down on it. I mean, bodily exercise has some value. Toning up yourself and all,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But

godliness, exercising yourself in godliness, hey, that you will reap eternal dividends.

지금 바울은 신체적인 운동에 관하여 같은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 운동은 일시적인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영원한 유익이 있습니다. 요즈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조깅, 에어로빅..등 운동이라면 거의 사족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어느날 저녁, 내가 나의 아내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창 밖, 길 저 건너편에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것 이었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먹고 있었고 그들은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대단히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후식을 먹지 않고 꼭 참았죠. 체력을 단련하는것이 다소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흥미들이 너무나 지나쳐 이젠 미국 전체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것은 아닙니다. 신체적인 운동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체력을 높이는것은 나쁠게 없습니다. 하지만 경건과 경건의 연습은 당신에게 영원한 이익 배당을 가져다 줍니다.

Let me tell you what, I used to be about the most physical fit person around. In time, it will get all of you. I mean, you may you know go for it for a time, sure it's great. But ultimately, what was it, the guy that did all the writing on everything you want to know about running, how about that? Died of a heart attack while he was jogging. Mister Fix. Better watch out for that jogging, it's dangerous to your health you know, it will wipe you out.

나도 한 뎀 누구보다도 신체적으로 가장 단련된 사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겠지요. 한때 그렇게 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사실 신나는 일이나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토록 관심을 기울인, 체력단련분야에 관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책을 낸 획스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깅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조깅도 좋지만 더 조심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건강에 위협합니다. 잘못하면 죽게 됩니다.

There are things that have temporal values, there are things that have eternal value and a man who is wise will engage in those things of eternal value. He will choose the eternal over the temporal, if you're really wise. There are things that can bring you temporal gain. There are things that can bring you eternal gain. The man who is wise would choose the eternal over the temporal. So Paul is telling Timothy the same. Bodily exercise it profits. Timothy was a younger man, probably keeping in shape. It's fine. But hey, don't neglect the godliness, spiritual exercise. Now again,

세상에는 일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에 중사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일시적인 것 보다는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일시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거이 있고 반면에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일시적으로 유익한것 보다는 영원히 유익한것을 선택할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일한것을 디모테에게 말해줍니다. 육신의 연습은 유익이 있다고 말입니다. 디모테는 젊은 청년 이었으므로 아마도 신체단련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좋아. 그러나, “이보게. 경건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말며 영적 단련을 무시해선 안돼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This is a faithful saying and worthy of all acceptance (4:9).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 하도다 (4:9).

It's again Paul uses this phrase. It's a true saying, and it's worthy that all should accept it. And that is that the spiritual is superior to the physical or the material. That it is better to exercise yourself in spiritual matters than in physical matters. One has only temporary value; the other is of life now and also that which is to come, the eternal. And because of this declaration, Paul said, the superiority of the spiritual over the physical, which is the opposite of the worldly view.

바울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진실로 말하는 바는 그것이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는 것이며 영적인 것이 육체적이나 물질적인 것 보다 더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일이 육체적인 일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단련이 그저 일시적인 가치를 가졌다면, 영적인 단련은 현재와 닥아올 미래와 영원한 삶에 까지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이유로 인해, 바울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영적인 삶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refore we labor and we suffer reproach (4:10),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4:10),

The world reproaches us. They take an opposite view of this completely. The time in church to them is a waste of time.

(10절 말씀이지요.) 세상은 우리를 비난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영적인 일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because we trust in the living God, who is the Saviour of all men, specially of those that believe (4:10).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둬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4:10).

Jesus died for the sins of the world. But only those who believe receive the forgiveness of sins. Jesus died to redeem the world, but He will only take His treasure out of it. And so He died and is the Saviour of all men, but specifically those who believe. He provided salvation for all men, but not all have received it.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를 믿는자들만 죄의 용서를 받아 드립니다. 예수께서 온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셨지만 그는 세상에서 단지 보화를 취하실것입니다. 그가 죽으시므로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셨지만, 특별히 주님은 그를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더라도, 모두가 그것을 받아 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These things [Paul said, you should] command and teach. Let no man despise thy youth (4:11-12);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How old was Timothy? Well, he had been with Paul now traveling as a companion for fifteen years. Assuming that he was fifteen years old when he started out with Paul, and that's probably a little young, but let's say that he was only fifteen, he's at least thirty years old now. So he's not just a kid. When Paul said, "Let no man despise your youth," you shouldn't be thinking of some fifteen, sixteen-year-old kid. Timothy is probably thirty or more at this particular point. But when the elders were not really considered elders until they became fifty, there was that tendency to look down upon a younger man as lacking in the wisdom that comes from age and maturity. So "let no man despise your youth,"

당시에 디모테가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기론 그가 적어도 15년 동안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선교 여행을 시작한 시점은 그가 아주 어린 소년이었으므로, 그냥 15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그가 지금은 적어도 30세는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했을 때, 그를 15세나, 16세의 소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디모테의 나이는 아마 30이나 그 이상 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장로들은 남자의 나이가 50이 넘지 않으면 장로로 대접하지 않았습디다. 나이와 경륜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이 젊은 사람에게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한것입니다.

but instead be an example of the believer, in the word, in your manner of life, in love, in the spirit, in faith, and in purity (4:12).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4:12)

Set the example, Timothy. Now what Paul writes to Timothy is good for all of us. We should be examples of what a Christian is. Paul said to the Corinthians, "You are living epistles, known and read of all men" (II Corinthians 3:2). As a Christian, the world is watching you. Be an example of the believer, not unto the believer but of the believer. What a believer should be. This is how a believer should live. This is how a believer should act and react. Be the example of a believer, in your words. The word "conversation" there is an old English word that it is just doesn't mean in you know in your conversing with each other, but in your manner of living, your total manner of living. Let it be as becomes godliness and Christianity. "In your love, the agape, in the spirit, in faith, in purity."

디모테야, 본을 보여라. 바울이 디모테에게 쓰는 글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것인지 본이 되어야합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했습니다 (고후 3:2).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십시오, 믿는자에게 본이 되는것이 아니라

믿는자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자가 어떠 해야하며, 믿는자는 이렇게 살아야한다
든가, 믿는자의 행함과 반응이 이러해야 한다든가, 그리고 말하는 것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로써 모범이 되는 삶의 시작은 먼저 말의 사용에 있습니다.
“대화”라는 단어는 단지 ‘얘기를 나누다’가 아니라, 나의 생활의 내면과 삶의 전체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경건하며 기독교 정신이 되게합니다. 즉 “사랑으로, 영으로,
믿음으로, 정결하게,…” 합시다. 13절 말씀..

Now till I come, give attendance to reading, to exhortation,
and to doctrine (4:13).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
(4:13).

So these are the three things that were done in the early church. The
reading of the Scriptures. It was a very prominent and common practice in the
early church when the Christians gathered together to read the Scriptures. These
letters that Paul sent to the churches were to be read to the churches. So he tells
Timothy, “Give attendance to the reading of the Scriptures.” There’s value in just
the reading of the word of God. But then also the exhortation. As you are then
prompting people to act upon the word. “To be doers of the word, and not
hearers only” (James 1:22). Now trust in the Lord. Now give thanks to God. And
so the exhorting of the people and then also to the doctrine.

이 세 가지는 초대 교회에서 행하여 졌던것입니다. 성경을 읽는것은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기 위하여 모였을 때 흔히 사용하는 아주
뛰어난 의식이 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여러 교회에 읽혀
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말씀을 읽는 일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그저 읽는 것 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들이 말씀을
실천하고자하는 자극을 주기위해 권고도 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약 1:22). 주님을 의지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권고하여 교훈을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And neglect not the gift that is in you, which was given to you by prophecy,
with the laying on of the hands of the presbytery (4:14).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4:14).

So Paul here is mentioning how that when Timothy had hands laid upon
him by the presbytueros, by the elders, they laid hands on Timothy and a
prophecy came forth and in the prophecy, Timothy’s ministry was declared,
directed. And now Paul tells him, don’t neglect that gift that was given to you by
the word of prophecy when the elders laid hands on you.

바울은 언급하기를 디모데가 장로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장로들이 그에게 손을 얹고 예언함으로써 디모데의 사역을 알렸고 그 사역의 방향도 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길 장로들의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주어진 예언의 말씀과 은사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15,16절을 봅시다)

Meditate upon these things; give thyself wholly to them; that your profiting may appear to all. Take heed to yourself, and unto the doctrine; continue in them: for in doing this you will both save yourself, and those that hear you (4:15-16).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4:15-16).

Interesting. Take heed to yourself and to the doctrine. Continue in them: for in doing this you not only save yourself, but you save others. It is important that we are reaching out. Important for our own continuance that we go on and that we're pressing on and that we're reaching out. There's really no place for stagnation.

정말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고 가르침에 주의 하십시오. 그것들 가운데 계속하십시오. 이것을 행하는 것은 당신 자신만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구원하기 위한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도달하기 위한 목표나, 그것을 얻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들.. 그래서 현재 진행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접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침체될 여지가 없습니다.

This is something that I think that we all ought to really carefully examine our own hearts. The Bible says, "Now let a man judge himself. For if we will judge ourselves, we will not be judged of God" (I Corinthians 11:28,31). And I think that we should all examine our own hearts and our own present relationship to Jesus Christ. And as I examine my present relationship to Jesus Christ tonight, is there a time in my walk with the Lord that I was more fervent than I am tonight? Is there a time when I was more excited about the things of Jesus than I am tonight? Is there a time when I was more diligent in my serving the Lord than I am tonight? And if in the examining of your heart, your present relationship and your past experiences, if tonight you do not have a deeper, richer, more enthusiastic relationship with the Lord, then you are in a backslidden state.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의 깊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찌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고전 11:28,31) 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마음과 현재 나와 주□□□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한다고 □□□□. 내가 오늘 저녁에 □□ □□□□ 나의 현재 관계를 살펴볼때, 오늘 저녁보다 더 뜨겁게 주님과 동행한적이 있는가? 오늘 저녁보다 더 예수님의 일에 관하여 더 흥분된 적이 있었는가? 오늘 저녁보다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긴 적이 있는가? 여러분 들의 마음과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점검할때, 만일 오늘 저녁에 주님과 관계가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고무적이라면 여러분은 퇴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If at any time in your walk with God, your relationship to Him was more richer, more committed than it is tonight, then you are in a backslidden state and you should be very careful about that. The Spirit speaks expressly concerning the last days. That because the iniquity of the world will abound, the love of many is going to wax cold. Are you one of those in which the love is waxing cold? And it should cause us very serious consideration.

만일 언제라도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오늘 이 순간 보다 더 풍성하고 더 헌신 된 날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퇴보해 있으며 그것에 대하여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은 마지막 때에 관하여 밝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불법이 성해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미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의 하나는 아니겠지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Jesus said to the church of Ephesus, "I have this against you, because you have left your first love. Now repent, do thy first works over; or else I will remove the candlestick out of his place" (Revelation 2:4-5).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 2:4-5).

There is a story told of a man who was lost in a blizzard. And as he was just blindly walking through the snow, blinded by the blizzard, he was becoming tired and weary until he just stumbled and fell and he just felt, I'll lie here for a little while. I just don't have the strength to go on. But as he was lying there, he came to the realization that what caused him to stumble was a body that was lying there being buried in the snow. And so realizing that there was another person there, he picked him up, felt that the pulse was still there, picked him up and started trudging through the snow, carrying now this other person with a superhuman effort and within fifteen feet, he came to the door of a cabin where he was saved. But he came to a very interesting discovery. And that is, in saving this other person, he in reality saved himself.

나는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은 한 남자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한 눈보라 속에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보라가 심하게 불어 급기야는 길은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히 피곤하고 지쳐서 걸려 넘어져서 내가 더 이상 걸어갈 기력이 없으니 여기서 잠깐만 누워서 쉬자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누워 있는 동안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한 한 사람의 몸이 눈에 파 묻혀있는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한사람이 있다는것을 깨닫고 그는 그 사람을 일으켜 보니 아직 맥박이 뛰고 있는것을 느꼈고 그는 그 사람을 안아 일으켜서 눈위를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초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여 이 사람을 옮기는데 채 15 피트도 못가서 그들이 구출 받은 초막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재미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That's what Paul is saying to Timothy. "Take heed to yourself and to your doctrine, continuing in them for in saving others, you really save yourself." You see, you cannot minister unto others without being ministered to by the Lord. I've often said the best way to learn is to teach because you have to study so much more in order to be able to give out that in teaching a subject, you really learn the subject thoroughly. And the best way to learn is to teach. The best way to develop is to give. To give out. "Take heed to yourself and to your doctrine." Continue in them for in saving others, in reaching out to others, you'll find that it will be your own salvation. It will be your own enrichment. It will be to your own blessing, strengthening in the things of the Lord.

그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자주 얘기했지만, 가르치는 것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가르칠수 있도록 되기위하여 훨씬 더 많이 공부해야하며 당신 자신이 실제로 그 과목을 철저히 배우게 됩니다. 발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과 너의 가르침에 삼가 주의하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계속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라 그리하면 그것이 당신 자신의 구원이 될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부요케하며 그것이 당신 자신에게 축복이 되며 주님의 일을 할때 강건케 할것입니다

Father, as Your Holy Spirit has again tonight caused us to look in the mirror, to see the truth, to face the reality of what we are, help us, Lord, not to be so foolish as to just go away and forget what we saw. But Lord, I pray tonight that there might be within our heart that renewed commitment to the things of the Lord. Things of the Spirit. Lord, we know that we are in the last days. Many have departed from the faith. Have been caught up with these seducing spirits, following after the flesh, turning away from the things of God. Being drawn into the things of the world. God, help us in these days to be like You. God, give to us a renewed experience in the Spirit that we might walk in the Spirit and live in the Spirit and be led of the Spirit. A new sense, Lord, of spiritual values. The examination of our priorities, our energies going into those things that are going to fail and those things that are going to crumble and those things that are going to be reduced to ashes while we neglect the eternal. Physically fit but spiritually bankrupt. God, may that not be our case. Renew our hearts in the things of the Spirit, our walk and life with Thee. In Jesus' name, Father, Amen.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임하셔서 진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어떠한 사람인지 보게 하소서 또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분명히 본 것을 잊어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제 기도하기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헌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사는 줄을 깨닫게 하옵소서..

많은 자들이 미혹하는 영들의 훼방과 하나님을 거역하여 육신을 좇아 행하므로 믿음을 떠나 세상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주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의 안에 거하므로 더불어 행하며 그와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영적인 가치를 지니게 하소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에는 실패 할 수 밖에 없으며 산산이 부서져 재가 되어 버릴 것들에 삶의 우선권을 두고 우리의 힘과 노력을 쏟게 될 것을 아나이다. 육신은 흥하겠으나 영은 쇠할 것이니.. 우리로 그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그와 더불어 우리의 삶을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ay the Lord be with you to guide and direct you this week in the path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May you be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that you might be blameless, walking in love, walking in the things of the Spirit. A witness to the world around. An example of what the believer ought to be. Bringing glory unto God through your commitment to Jesus Christ. God help you in these last days to stand strong. Stand firm. Giving heed to things of the Spirit, the doctrine, saving others, saving yourself. In Jesus' name.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좇아 이 한 주간에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옷 입고 흠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함으로 행하되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세상의 증인으로써, 믿는 자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따라 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헌신을 좇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마지막 때에 강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길 구합니다. 자기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주의 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